

# 에크리튀르와 경호란 어린이

교육의향



조재호  
무등초 교사

에크리튀르(ecriture)란 개념을 처음 들었을 때 떠오른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에크리튀르란 프랑스 언어학자 롤랑바르트가 만든 개념인데, 그저 어렵게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경호(가명)란 초등학생을 생각하며 막연히 이해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그 깨달음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치다 타츠루의 '어떤 글이 살아남는가'에서 나온 에피소드입니다. 글쓰는 학생들과 파리로 체험학습을 갑니다. 박물관 입장권을 구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지하철역)를 돌아다닙니다. 무려 열 한곳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돌아온 대답은 "더 이상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치다 교수는 이 경험을 토대로 에크리튀르란 개념을 설명합니다. 프랑스 사회는 매우 계층화된 사회입니다. 알제리 등 이민자들과 상류층의 삶의 양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삶이 다르니 쓰는 '언어' 자체가 다르겠지요. 같은 프랑스어지만, 그것을 말하는 방식, 톤, 태도, 어휘마저 차이가 납니다. 우치다 교수가 만난 지하철 근무자들은 모두 똑같이 "나는 모른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물관 패스권을 어디서 파는지 나는 몰라요. 하지만, 내가 좀 찾아볼까요"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여기서는 팔지 않는다"는 통명스러운 말과 함께 다

른 장소로 가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루종일 돌아다닌 후 들었던 말이 "지금은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에크리튀르란 개념은 계층마다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언어가 달라진 것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개념입니다. 상류층들은 언어 사용이 유연한 것에 반해 하층 계급의 경우는 언어들이 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집단만의 고유한 언어들, 비속어들, 특수한 용어들로서 '공동체' 소속감을 느끼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하위집단일수록 "나는 모른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류계층일수록 재산, 지위, 지식에서 연결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러나 하위계층들일수록 자기 집단속에서만 정체성을 누리기에 "모르는 것"을 묻거나 해결해줄 연결망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란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을 찾고, 선생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지식, 도움을 얻는 예절을 배울 기회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치다 타츠루 선생은 "성장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 둘째는 잘 알고 있는 선생을 알아보는 것, 셋째는 선생에게 배우기 위해 필요한 예의범절을 갖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장을 위한 에크리튀르는 계급이나 계층과는 무관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무지를 깨닫고 선생을 구하고, 예절을 배우는 것!

난 경호라는 어린이를 떠올렸습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체육, 영어, 티볼로 만난 어린이입니다. 얼마 전, 대화를 나누다가 "저는 스승의 날에 항상 유치

원에 찾아가요"라고 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을 만났는데, 유치원으로 스승의 날에 선생님을 찾아가는 친구는 처음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경호와 시간을 보내며 알게 된 여러 가지 파편의 진실 속에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경호는 아버지와의 생활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을 가끔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경호는 선생님들에게 무척 총애를 받는 어린이입니다. 공부를 씩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교사가 하는 말을 신뢰하고, 경청하며 이를 행하려 합니다. 그렇다고 모범생 느낌은 아닙니다.

다만, 교사에 대한 신뢰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것이 아마 유치원때 형성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애착을 채워줬던 유치원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에크리튀르가 경호가 적어도 초등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 중 하나로 성장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경호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늘 솔직히 말하고(티볼, 영어, 수학...), 선생님에게 주저 없이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거기에 더해 그는 가르쳐주고 싶은 예절을 갖춥니다. 매우 간절하고 절실한 표정과 공손한 자세. 이런 학생에게 어떤 교사가 가르쳐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경호의 에크리튀르는 그 아이가 속해있는 객관적인 '지위'나 '계급'과 상관없이 이미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이 푸르른 오월, 나는 어린 경호를 돌봐주고 사랑해줬던 경호의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진한 연대감을 느낍니다. 또한 경호가 앞으로 만날 수많은 미래의 교사들에게도 같은 희망과 뿌듯함을 품습니다.

## 社說

### '지역현안' 빠진 尹대통령 5·18 기념사

#### "자유토대 경제발전" 언급뿐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매해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약속했지만 올해 '지역 현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을 위로하며 민주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했다. 그는 "오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리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고 경제 위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자유와 복지 수준 향상 등을 과제로 제시했으나 기대를 모았던 지역 발전 정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2022년·2023년 기념사에서는 "인공지능(AI)과 첨단과학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며 광주지역 현안과 관련한 정책을 짧게라도 지목했다. 올해 역시 기대감을 모았던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지역발전 언급이 전혀 없자 아쉬움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준비 중인 광주시도 인공지능 집적단지 2단계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현안에 대한 명시가 없어 아쉽다는 반응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이후 한번도 빠지지 않고 5·18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매우 뜻깊다. 오월 영령을 기리고 유족과 시민을 위로하는 장이 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광주는 과거 지역갈등의 희생양이 되면서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 윤 대통령이 수도권과 동·서간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도 살뜰히 챙겨야 마땅하다.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지역현안' 언급이 없다는 것은 아쉬움이 크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2단계 사업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광주 민간·군공방 이전, 복합쇼핑몰 관련 교통대책 등 주요 현안들이 수두룩하다. 광주시는 수차례 정부에 이같은 현안 지원을 요구해왔다.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 전 중단된 민생토론회를 조만간 재개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념사에 미언급된 지역현안에 대한 지원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 '오월 정신' 헌법 수록 올해 원년 삼아야

#### 22대 국회서 '개헌 주도' 염원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5월 정신을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이견없이 한목소리를 냈다. 곧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개헌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해 이른바 '87년 헌법'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데 방점을 찍은 포괄적 개헌론을 제시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같은날 5·18 정신의 헌법 반영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부각하며 '5·18 원포인트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여야 모두,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의 모든 당 대표들이 찬성한 일"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최근 경남 김해에서 재배한 국화 1천 송이를 들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22대 국회에서 5·18 헌법 전문 수

록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행 헌법은 1897년 제정될 때 전문(도입부)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내용을 수록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5·18의 민주화 업적 등을 고려하면 오월 정신도 여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의 요구다.

헌법 이념에 5·18을 포함할 경우 시민 폭동, 북한군 개입 등 온갖 왜곡과 폄훼 등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찬성한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서 광주시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겼다.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약속했다. 개헌 방식 등에 이견은 있지만 여야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의지를 보인 만큼, 5월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올해 '개헌 주도'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월정신이 깃든 헌법 위에서 화합과 변혁을 이끌도록 22대 국회가 행동에 나서야 할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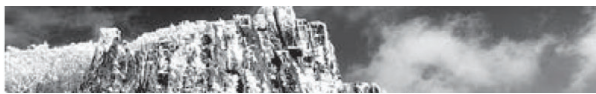


#### 사진으로 보는 세상

그룹 피원하모니가 16일(현지시각) 미 텍사스주 프리스코의 포드 센터에서 열리는 제59회 '아카데미 오브 컨트리 뮤직'(ACM) 시상식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피원하모니는 케이팝 그룹 최초로 ACM에 참석했다.

AP/뉴시스

#### 서석대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다. 1993년 '열반'에 든 성철 스님은 한국불교 근현대를 대표하는 선승이다. 1968년 여름, 해인사 백련암 법당. 수백명의 남녀 대학생들이 땅이 범벅이 돼 절하고 있었다. 스님을 만나려면 누구나 불전(佛前)에 3천 배를 해야한다. 그런데 학생들의 옷이 땅에 달라붙어 보기 민망할 정도였다. 이를 본 법정 스님은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 절하는 것을 비판했다. 그러자 다른 젊은 스님들이 발간해 법정 스님 방의 물건을 치워버렸다. 논란이 커지자 법정은 서울로 수행처를 옮겼다.

1982년, 14년이 지나 성철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법정은 '3천 배'에 담긴 의미를 물었다. 성철 스님은 답한다. "단순히 절만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절을 하라고,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3천 배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의 심중에 큰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오고나면 그 뒤부터는 절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절을 하게 되거든요." 남을 위해 절하고, 중생을 위해 매일 참회의 절을 하란 말씀은 수행을 왜 하는가에 대한 답이 아닐까 싶다.

절의 한자는 '배(拜)'다. 배는 양손을 나란히 합쳐 앞으로 내민다는 뜻이다. 절을 해보면 참회와 감사를 깨닫게 된

다. 몸과 마음을 낮추면 저절로 참회가 되고 감사한 마음이 우러난다. 참회, 존중, 추모 등의 함의가 담겨있는 '몸 언어'다.

정치권에선 사죄의 의미로 3천 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 2010년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무력 충돌을 사죄하며 당시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중앙홀에서 3천 배를 했다. 지난 2004년 총선 때 새천년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광주에서 사흘간 세 걸음을 걷고 한번 절하는 걸 반복하는

삼보일배를 했다. 직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으로 떠나간 호남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고행을 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3천배와 5·18 참배가 화제다. 지난 13일 이 대표는 화성시 용주사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열린 난치병 어린이 돕기 3천배 정진법회에 참석해 3시간 동안 절을 올렸다. 15일엔 경남에서 재배한 국화 1000송이를 들고 5·18묘지를 참배했다. 7시간30분에 걸쳐 995기 묘역에 헌화하고 절을 올렸다. 이 대표는 "열사의 사연 하나하나를 다 느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울림있는 정치인의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다. 민주당에는 이런 정치인 없나. 김선욱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